건설교통부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위해 노력할 터

추병직 장관

친애하는 건설교통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乙酉年이 가고 丙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부는 참여정부의 한가운데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이끌고 온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위기상황을 행정중심도시 추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전환시킴으로써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도 우리는 해냈습니다. 끈질긴 설득과 대화를 통하여 이해관계자를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 냈으며 지금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업도시도 당초 목표한대로 전국 6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시장 안정입니다. 수많은 공론화 과정과 여론수렴을 거쳐 지난 8.31에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불안하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화물연대 집단행동 움직임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SOC 확충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험합니다.

우선,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국토를 형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매진하고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8.31대책에 따른 후속제도를 착실히 시행하고, 다가구 매입임대나 국민임대주택 건설,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한 차원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자금 지원 확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주택가격공시제도 등도 착실히 시행하여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 고속도로에 연기금을 투입하고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고속도로사업도 조기에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작년에 IMF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었던 해외건설 수주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국토를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하고,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환경관련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화 기술을 민원처리 등에 적용하고 정책자료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홍보노력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기술력 제고를 위해 R&D를 확대해 나가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화 진전에 대비한 국제적 업무도 적극 개발해 나가며, 부패없는 깨끗한 건교부로 만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가족 여러분!

또 한번의 변화와 도약의 한 해가 될 丙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겨 달성하고, 전국이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일류국토를 가꾸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